

#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신상 공개

### 경찰, 어제 신상공개위 개최해 확정... "범죄수법 잔인하고 증거도 충분"

## 2016년 '성당 살인사건' 중국인 이어 두번째 사례

전 남편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여)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2016년 '성당 살인사건'에 이어 두번째 사례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고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수법이 잔인

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고유정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씨의 얼굴은 향후 검찰 송치나 현장검증 등의 상황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도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같은달 28

일 제주항에서 안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는 등 도주 행각을 이어왔지만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거주지에서 경찰에 들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시신을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핸드폰으로는 "니코틴 치사량", '살인도구' 등을 검색하는 등의 정황도 드러났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라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이뤄졌다. 앞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

범죄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까닭이다.

신상공개 요건은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고씨의 신상공개는 제주에서 두번째 사례다. 앞서 2016년 9월 제주도 연동에서 일어난 '성당 살인사건' 피의자인 중국인 천귀레이(54)가 처음으로 신상공개위원회에 의해 정보가 공개됐다. **송은범기자**



제주시 노형동 소재 오피스텔에 차려진 불법 문신 영업장.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 자치경찰 오피스텔 급습해보니...

### 5월 한달 기획수사... 불법의료행위 8건 적발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벌이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5월 한달 동안 '보건의료분야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총 8건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불법 의료행위 사례를 보면 A(35·여)씨는 제주도 노형동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문신 영업장을 차려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모집한 후 눈썹 또는 아이라인 문신을 1회당 15만원씩 받고 불법 시술하다 적발됐다.

B(20)씨는 제주도 다과구 주택에 불법 타투 영업장 시설을 갖춰놓고 블로그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 레터링(글씨 문신)을 4만원씩 받고 불법 시술을 했다.

이밖에 세금을 감면 받을 목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제주시 소재 의료기관 운영자 C(64)씨와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미용실 업주 D(52·여)씨도 적발됐다.

이번 자치경찰이 불법의료행위자를 검거하며 적용한 혐의는 무면허 의료 및 진료기록부 허위기록 5건(의료법),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1건(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공중위생관리법) 등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미용과 성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허가 업소에서 불법시술을 받은 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분야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 '禹·文 커넥션' 주장 한광문 항소심 유죄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권력형 커넥션'을 제기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한광문 자유한국당 전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광문 전 대변인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전 대변인은 지난해 5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문대림 전 후보의 친인척이 2011년 수산보조금 9억원을 허위로 받아 범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당시 우근민 도정이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문 전 후보와 우 전 지사간 커넥션이 존재한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 여름관광 묘미... 카약 즐기기 관광객들이 4일 제주도 구좌읍 바다에서 카약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 축산농가 악취관리지역 취소소송 기각

### 광주고법 항소심 "제주도의 관리지역 결정은 합리적"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놓고 제주도와 소송을 벌이던 도내 양돈농가가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5일 도내 양돈업자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3월 23일 제주도는 제주도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의 양돈장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면적은 약 56만 1066㎡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개선명령이 이뤄지고 이마저도 지키지 않으면 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양돈업자들은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법적 근거로 내세운 '악취방지법 6조 1항 1호'의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합법성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악취측정과 민원 근거 미비,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등을 지적하며 지난해 6월 19일 제주도를 상

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뒤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법 보충작용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원고의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도의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 역시 지난 2월 12일 대법원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려 마무리됐다. **송은범기자**

## 제주안전체험관 내년 10월 문 연다

### 어제 건립 기공식... 10종 체험시설 들어서

다양한 재난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주안전체험관'이 첫 삽을 떴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5일 제주도 애월읍 어음리 소재 제주안전체험관 부지에서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과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안전체험관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 사진

제주안전체험관은 총 25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부지 4만6789㎡, 건축 연면적 5400㎡,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2020년 10월에 개관될 예정이다.

체험관에는 화재 및 풍수해, 지진 등 5개 테마·총 10종의 체험시설이 들어서며 실제 재난현장과 유사하게



연출돼 방문객들의 체험효과와 집중도를 높게 된다.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박 안전, 항공기 안전 등 특성화 체험존도 배치된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다른 지역은 안전체험시설을 한두 곳씩 갖추고 있지만 제주에 마땅한 시설이 없었다"며 "제주 특성에 맞는 안전체험관 첫 삽을 뜨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濟州) 리모델링  
辛(辛) 一(一) 祚(祚)

**누수탐지·방수**

신축/중축/리모델링/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지붕개량/  
옥상방수/페인트공사/창문/도어문/대문 교체  
블락이장/싱크대/신발장/도배/장판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도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웅웅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9층 901호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피스텔 2층 국제보청기(국제보청기)  
한라체육관 1층 내수영장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리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굴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블러드 오렌지(다로코)
- 천천(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당도 16브릭스 이상)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 \* 유리실생 1년생 \* 황금향 3년생
- \* 유리조생 (감귤박람회 최우수 감귤) 7년생
- \* 궁천 (궁천번이치) 1,2,5년생
-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 레드향(무독) 천혜향(무독) 1,2,3년생
- \* 고림 남진해 수루미 레몬 2년생
- \* 한라봉 6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 자갈(돌맹이) 필요하신분 연락요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